

## 四端七情 論辯\*

### 1. 答奇明彦書(四七論辯 第一書)

性情에 대한 변론은 先儒들이 드러내 밝힌 것이 자세하였으나, 사단·칠정을 말하는데 모두 정이라고 말했을 뿐,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한 분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鄭生(鄭之雲)이 天命圖를 만들면서 “사단은 이에서 발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한다.”는 설이 있었는데, 나의 생각에도 분별한 것이 너무 심하여 혹 논쟁의 단서를 불러일으키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때문에 純善·兼氣 등의 말로 고쳤습니다만 이는 대체로 서로 도와 강론하여 밝히려는 뜻이었을 뿐, 고친 그 말에 허물이 없다고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의 辯說을 보건대, 잘못된 곳을 지적하여 깨우쳐 줌이 자세하니 깨닫는 바가 더욱 깊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의혹이 없지 않으므로 시험삼아 말하여서 바로잡음을 받으려 합니다.

사단도 情이고 칠정도 정이니 똑같은 정인데 사단·칠정이라는 異名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공의 편지에서 이른바 “가리켜 말한 것 [所就以言之]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와 기는 서로 따라서 體가 되고 用이 되는 것이니, 진실로 이가 없는 기가 없고 또한 기가 없는 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리켜 말한 바가 다르면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聖賢들이 이 두 가지를 논할 때 언제 반드시 혼합하여 하나로 말하고 분별하여 말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요.

또 性 한 자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子思는 천명의 성 [天命之性] 을 말하였고 孟子는 성선의 성 [性善之性] 을 말하였는데 두 性 字가 지적

\* 퇴계학연구원, 『退溪學 譯注叢書』 제5권(1996)에서 발췌·수록한 것임

하여 말한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理氣가 부여된 속에서 理의 源頭本然處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리킨 것이 ‘이’에 있고 ‘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純善無惡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를 겸하여[兼氣] 性이라 말하려 한다면 이는 이미 ‘성’의 본연이 아닙니다. 저 자사와 맹자가 道體의 전체를 본명히 보고서도 이와 같이 立言한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서가 아니라 진실로 ‘기’를 섞어서 [雜氣] 성을 말한 경우 성이 본래 선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후세에 와서 程子, 張子 등 여러 분이 나온 뒤에 부득이 기질의 성 [氣質之性] 이란 의논이 생겼지만 이 역시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기 위하여 異論을 세운 것이 아니라 지적하여 말한 바가 사람이 태어난 뒤에 있었으므로 그것을 순수한 본연의 성 [本然之性] 으로 混稱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일찍이 망령되어 ‘정’에 사단·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이 마치 ‘성’에 本然과 氣稟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기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어찌 ‘정’에 대해서만 유독 이·기로 나누어 말할 수 없겠습니까.

惻隱·羞惡·辭讓·是非가 어디로부터 발합니까? 仁·義·禮·智의 性에서 발합니다. 喜·怒·哀·懼·愛·惡·欲이 어디에서 발합니까? 外物이 사람의 形氣에서 접촉하여 마음이 움직여 환경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발하는 것을 맹자는 이미 心이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심’은 진실로 이·기의 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여 말한 바가 理에 주로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인·의·예·지의 성이 순수하게 속해 있고 이 네 가지는 그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칠정이 발하는 것을 朱子는 본래 당연한 법칙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칠정에 ‘이’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가리켜 말한 바가 ‘기’에 있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외물이 음에 쉽게 감응되어 먼저 움직이는 것이 形氣만한 것이 없는데, 일곱 가지는 바로 그 묘맥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속에 있으면 순수한 理이던 것이 발하자마자 ‘기’와 혼합될 수 있으며, 외물에 감응되었다면 형기인데 그 발하는 것이 어찌 이의 본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모두 선하기 때문에 네 가지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고, 또 그 ‘정’으로써 말하면 선하다고 말할 수 있다<sup>2)</sup>고 하였습니다. 칠정은 선·악이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두어 잘 살피지 않으면<sup>3)</sup> 마음이 바름을 얻지 못하고, 반드시 말하여 절도에 맞은 뒤에야 **와라** 한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보면 두 가지가 모두 이·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 所從來로 인하여 각각 주장하는 바와 중하게 여기는 바를 가리켜 말한다면 어떤 것을 ‘이’라 하고 어떤 것을 ‘기’라 한들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보내주신 편지 뜻을 자세히 살펴보건대, 이·기가 서로 따르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알고서 그 설을 극력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가 없는 ‘기’가 없고 ‘기’가 없는 ‘이’가 없다 하여 사단과 칠정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비록 옳은 듯하지만, 성현이 말씀한 뜻으로써 헤아려 보면 합당하지 않는 바가 있는 듯합니다.

대체로 義理의 學과 精微한 이치는 반드시 마음을 크게 가지고 안목을 높여 절대로 먼저 일설로써 주장을 삼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기운을 화평하게 하여 서서히 그 義趣를 관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다른 것이 있음을 알고 다른 속에 같은 것이 있음을 보아서 나누어서 들로 만들어도 일찍이 떨어지지 않고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도 실은 서로 섞이지 않은 뒤에야 두로 갖추어져서 편벽됨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성현의 말씀으로써 반드시 그렇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옛날에 공자께서는 繼善·成性の 論<sup>4)</sup>이 있었고, 周子는 無極·太極의 설이 있

2) 그 ‘정’으로써……할 수 있다 : 已發의 情이 선한 것으로 보아서 性이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 예를 들면 仁은 성이고 惻隱은 정인데, 측은을 보아서 속에 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 孟子 告子上.

3) 하나라도……않으면 : 大學 正心章 註에 있는 말로, 마음에 忿懣·恐懼·好樂·憂患이 있으면 마음이 바름을 얻을 수 없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마음의 작용으로서 사람에게 있어서 없을 수 없는 것이지만,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마음 속에 두어 이치를 살피지 않으면 바름을 상실하게 된다는 뜻.

4) 繼善·成性の 論 : “繼之者善也成之者性也”의 준말로 道를 있는 것을 선이라 하고, 도를 이루는 것을 성이라 한다는 말. 周易 繫辭上.

었는데, 이것은 모두 이·기가 서로 따르는 가운데 理만을 떼어 내어 말한 것이고, 공자가 말씀하신 相近·相遠의 性<sup>5)</sup>과 맹자가 말한 耳目口鼻의 性<sup>6)</sup>은 모두 이·기가 서로 이루어진 가운데 한 쪽만을 가리켜 氣만을 말한 것이니, 이 네 가지가 어찌 같은 것 속에 다름이 있음을 아는 것이겠습니까. 子思가 中和를 논하면서 喜·怒·哀·樂만을 말하고 사단을 언급하지 않았으며,<sup>7)</sup> 程子가 好學을 논하면서 喜·怒·哀·구·애·오·욕만을 말하고 사단을 말하지 않았는데,<sup>8)</sup> 이것은 이·기가 서로 따르는 가운데서 혼합하여 말한 것이니, 이 두 가지가 어찌 다른 것속에 같음이 있음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의 변론은 이와 달라서 합동하기를 기뻐하고 분리하기를 미워하며, 하나로 몽땅그리기를 좋아하고 분석하기를 싫어하여 사단·칠정의 所從來는 따지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이·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다고 여겨 깊이 분별하여 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중간에 비록 “理는 약하고 氣는 강하며, 이는 조짐이 없고 기는 자취가 있다.”는 말이 있기는 하였지만, 끝에 가서는 곧 ‘기’가 자연히 發現하는 것을 ‘이의 본체가 그러한 것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드디어 이·기를 一物로 여겨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세에 羅整菴<sup>9)</sup>이 이·기를 二物이 아니라는 설을 주장하여 심지어 朱子의 설을 그르다고까지 하였는데, 나는 학문이 천박하여 그 뜻을 깨닫지 못했거니와, 공의 편지의 뜻이 역시 이와 흡사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5) 相近·相遠의 性 : “性相近也習相遠也.”의 준말로, 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익힘으로 인하여 서로 멀어진다는 뜻. 論語 陽貨.

6) 耳目口鼻의 性 : 口가 味를 좋아하고, 耳가 聲을, 目이 色을 좋아하는 性을 말함. 孟子 告子上.

7) 자사가…… 않았으며 : 中庸 首章에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發而皆中節謂之和”라고 말하고 사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을 가리킨 것임.

8) 程子……사단은 말하지 않았는데 : 顏子의 好學에 대하여 논한 것이 論語 雍也 好學章 註에 보이는데, 七情만을 말하고 사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9) 羅整菴 : 명나라의 학자, 이름은 흠순, 자는 允升, 시호는 文莊, 정암은 그의 호이다. 20여년 동안 格物致知의 학에 전심하여 困知記를 지었는데 이치를 辨析한 것이 精深하였다. 明儒學案 47.

또 보내온 글에 이미 자사와 맹자가 가리켜 말한 것이 다르다고 하고, 또 사단은 선한 쪽만 떼어낸 것이라고 해놓고, 도리어 사단·칠정에 다른 뜻이 없다고 한 것은 스스로 모순되는 데 가깝지 않습니까. 학문을 講論하면서 분석을 싫어하고 합하여 一說 만들기를 힘쓰는 것을 옛사람이 鵲圖吞棗<sup>10)</sup>라 하였으니, 그 병통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차츰 ‘기’를 性으로 논하는 폐단에 빠지고, 인육을 오인하여 천리로 여기는 병통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어찌 가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보내 온 편지를 받고서 즉시 어리석은 나의 소견을 전하려 하였으나, 감히 나의 소견이 반드시 옳아서 의심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도록 속에만 담아두고 발설하지 않았더니, 근래 朱子語類를 보건대 맹자의 사단을 논한 마지막 1조에 바로 이 일을 논하였는데, 그 말에 “사단은 바로 ‘이’의 발이고[四端是理之發], 칠정은 바로 ‘기’의 발이다.[七情是氣之發]고 하였습니다. 감히 자신을 믿지 말고 스승을 믿으라고 옛사람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자는 내가 스승으로 여기는 바이고, 또 천하고금이 宗師하는 분이십니다. 주자의 이 말씀을 보고서야 비로소 나의 소견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당초 鄭生의 설 역시 병통이 없으니 고칠 필요가 없을 듯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나의 변변치 못한 소견을 대략 진술하여 가르침을 청하니, 모르겠습니까만 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치가 비록 이러하지만 名言하는 사이에 분명하지 못하여 誤差가 있을 수 있으니 先儒의 舊說을 따르는 것만 못하다고 한다면, 주자의 本說로 대신하고 우리의 설은 버리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의 생각에는 어떠합니까?

### 第一書 附記

---

10) 鵲圖吞棗 : 골륜은 渾淪의 뜻이다. 음식을 씹지 않고 그냥 삼키는 것을 골륜 탄이라 하는데, 대추를 씹지 않고 삼키면 전혀 맛을 알 수 없듯이 학문을 강론 하면서 條理를 분석하지 않고 두리뭉실 넘기면 정확한 뜻을 모른다는 말이다.

자사가 “喜·怒·哀·樂이 발하지 않은 것을 中이라 하고, 발하여 節度에 맞는 것을 和라 한다.” 한 것과 맹자가 “측은한 마음은 인의 단서이고, 수오의 마음은 의의 단서이고, 사양의 마음은 예의 단서이고, 시비의 마음은 지의 단서이다.”고 한 것이 바로 性情의 설인데, 선유들이 그 뜻을 드러내 밝힌 것이 극진합니다. 그러나 일찍이 상고해 보건대, 자사의 말은 그 전체를 말한 것이고, 맹자의 논은 그 일부분을 떼어 낸 것이었습니다. 대개 사람의 마음이 아직 발하기 전에는 그것을 性이라 하고, 이미 발한 뒤에는 그것을 情이라 하는데, 성에는 선하지 않음이 없지만 정에는 선·악이 있는 것은 진실로 옳은 이치입니다. 다만 자사와 맹자가 가리켜 말한 것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의 구별이 있는 것 뿐이고 칠정 밖에 다시 사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사단은 理에서 발하기 때문에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은 氣에서 발하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와 ‘기’가 갈라져 두 가지 물건이 되는 것이고 칠정은 性에서 나오지 않고 사단은 氣를 타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語意에 병통이 없지 않아 後學(고봉 자신을 가리킴)의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사단이 발하는 것은 순진한 ‘이’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이 발하는 것은 기를 겸하였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는 말로 고친다면 비록 前說보다는 약간 나은 듯하지만, 저의 생각에는 역시 타당치 않은 듯합니다.

대개 ‘성’이 잠깐 발할 때에는 ‘기’가 用事하지 않으므로 本然의 선이 곧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맹자가 이른바 사단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純一한 천리가 발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칠정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칠정 속에서 발하여 절도에 맞는 苗脈인 것입니다. 그러데도 사단·칠정을 상대시켜 들고[對擧] 아울러 [互言] 말하여 순리니, 兼氣니 해서야 되겠습니까? 人心·道心<sup>11)</sup>을 논

11) 人心·道心 : 心은 一身의 主宰로서 사물을 응대하는 주체인데, 사무를 응대하

한다면 혹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겠으나, 사단·칠정을 논하는 데라면 이와 같이 말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 이유는 칠정을 오로지 인심으로 보아서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이’는 ‘기’의 主宰이고, ‘기’는 ‘이’의 재료이니, 두 가지에는 진실로 구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와 ‘기’가 사물에 있어서는 渾淪하여 나누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약하고 ‘기’는 강하며, ‘이’는 조짐이 없고, ‘기’는 자취가 있기 때문에 流行·發現하는 사이에 過·不及의 차이가 없을 수 없으니, 이것이 바로 칠정의 발현이 혹 선하기도 악하기도 하여, 성의 본체도 혹 온전하지 못하는 바가 있게 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선한 것은 바로 天命의 본연이고, 악한 것은 바로 氣稟의 지나치고 못 미침이니, 이른바 사단·칠정이란 것이 애당초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래 학자들은 맹자가 선한 한 쪽만을 떼어 내어 지시한 뜻을 살피지 못하고서 으레 사단·칠정을 구별하여 논하니, 저는 그것을 병통으로 여겼습니다. 朱子가 말하기를 “회·노·애·락은 ‘정’이지만 그것이 발하기 전에는 ‘성’이다.”고 하였고, 性情을 논할 적마다 四德과 사단을 말했으니, 이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서 ‘기’를 ‘성’이라 말할까 염려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가 반드시 ‘이’가 ‘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가 지나치고 못 미침이 없이 자연히 발현되는 것이 바로 ‘이’의 본체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힘쓴다면 거의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 2. 答奇明彦書(四七論辯 第二書)

얼마 전에 誨諭하는 두 번째 편지를 받고서, 나의 前書에 말이 疎謬하여 정당하지 못한 곳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삼가 改修하였

---

는 사이에 形氣의 私에서 나오는 것이 인심이고, 義理의 公에서 나오는 것이 도심이다.

는데, 이제 그 改本을 전면에서 써서 그 가부를 묻고, 그 뒤에 이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니, 밝게 회답하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四七論 改本

性情에 대한 변론은 선유들께서 發明(뜻을 드러내 밝힘)한 것이 자세하지만, 오직 사단·칠정을 말하는데 모두 情이라고만 말하였을 뿐,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한 분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鄭生(鄭之雲)이 天命圖를 만들면서 “사단은 理에서 발하고 칠정은 氣에서 발한다.”는 설이 있었는데, 나의 생각에도 分別한 것이 너무 심하여 혹 논쟁의 단서를 불러일으키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므로 純善·兼氣 등의 말로 개정하였으나 대체로 서로 도와 강론하여 밝히려는 뜻이었을 뿐, 고친 그 말이 허물이 없다고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의 辯說을 보건대 잘못된 곳을 지적하여 깨우쳐 줌이 자세하니 깨닫는 바가 더욱 깊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의혹이 없지 않으므로 시험삼아 말하여서 바로잡음을 받으려 합니다. 사단도 ‘정’이고 칠정도 ‘정’이니 똑같은 ‘정’인데, 어째서 사단·칠정이란 다른 명칭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보내주신 편지에 이른바 “가리켜 말한 것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가 ‘기’와는 본래 서로 기다려 體가 되고 서로 기다려 用이 되는 것이니, 진실로 ‘이’가 없는 ‘기’가 없고 또한 ‘기’가 없는 ‘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리켜 말한 바가 다르면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성현들이 이 두 가지를 논할 때 언제나 혼합하여 하나로 말하고 분별하여 말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요.

또 性 한 글자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자사는 천명의 성[天命知性]을 말하였고, 맹자는 성선의 성[性善之性]을 말하였는데, 이 두 성 字가 가리켜 말한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이·기가 부여된 속에서 이 理의 源頭本然處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리킨 바가 ‘이’에 있고, ‘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純善無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兼氣를 성이라 말하려



한다면 이것은 이미 성의 본이 아닙니다. 저 자사와 맹자가 道體의 전체를 분명히 보고서도 이와 같이 立言한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서가 아니라 진실로 ‘기’를 섞어서 ‘성’을 설명할 경우 ‘성’이 본래 선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후세에 와서 程子·張子 등 여러 분이 나온 뒤에 부득이 氣質之性이란 의론이 생겼지만, 이 역시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기 위하여 異論을 세운 것이 아니라 가리켜 말한 바가 사람이 태어난 뒤에 있었으므로 그것을 순수한 본연의 성[純以本然之性]으로 (純以이 하는, 舊本에는 본연의 성으로 혼동하여[以本然之性混]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일찍이 망령되어 ‘정’에서 사단·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이 마치 ‘성’에 본연과 기품의 다름이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기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어찌 ‘정’에 대해서만 유독 이·기로 나누어 말할 수 없겠습니까.

측은·수오·사양·시비가 어디로부터 발합니까. 인·의·예·지의 성에서 발합니다. 희·노·애·구·애·오·욕이 어디로부터 발합니까. 외물이 사람의 形氣에 접촉하여 마음이 움직여 환경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발하는 것을 맹자는 이미 心이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심’은 진실로 이·기의 혼합체인데 가리켜 말한 바가 이에 주로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인·의·예·지의 ‘성’이 순수하게 속에 있고, 이 네 가지는 그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칠정의 발하는 것을 程子は “마음이 움직인다.”하였고, 朱子は “각각 마땅한 바가 있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또한 진실로 이·기를 겸한 것입니다. (程子 이하는 舊本에는 “朱子は ‘본래 당연한 법칙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理가 없는 것이 아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가리켜 말한 바가 기에 있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외물이 음에 쉽게 감응되어 먼저 움직이는 것이 형기만한 것이 없는데, 이 일곱 가지는 바로 그 苗脈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속에 있으면 순수한 理이던 것이 겨우 발하자 ‘기’와 뒤섞일 수 있으며, 외물에 감응되었다면 形氣인데 그

발하는 것이 어찌 도리어 이가 되고 기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이’가 된다는 이하는, 舊本에는 ‘이’의 본체가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사단은 모두 선하기 때문에 맹자는 이 네 가지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고, 또 그 정으로써 말하면 선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칠정이 본래는 선하지만 악에 흐르기가 쉽기 때문에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을 和라 하고, 하나라도 있는데 잘 살피지 않으면 마음이 바름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본래는 선하다는 이하는 舊本에는 “선과 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하나라도 있는데 잘 살피지 않으면 마음이 바름을 얻지 못하고, 반드시 발하여 절도에 맞는 뒤에야 和라 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이로서 보면 두 가지가 모두 이·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 所從來로 인하여 각각 그 주장하는 바를 (이 사이에 舊本에는 ‘與所重’ 세 자가 있었는데 지금 이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가리켜 말한다면 어떤 것을 ‘이’라 하고 어떤 것을 ‘기’라 한들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주신 편지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건대 이·기가 서로 따르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알고서 그 說을 강력히 주장하기 때문에 ‘이’가 없는 ‘기’가 없고 ‘기’가 없는 ‘이’가 없다 하여 사단과 칠정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비록 옳은 듯하지만, 성현이 말씀한 뜻으로써 헤아려 보면 합당하지 않은 바가 있는 듯합니다.

대체로 義理의 學과 精微한 이치는 반드시 마음을 크게 가지고 안목을 높여 반드시 먼저 一說으로써 주장을 삼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기운을 화평하게 하여 서서히 그 義趣를 관찰하여야 합니다. 같은 속에 다름이 있음을 알고, 다른 속에 같음이 있음을 보아서, 나누어서 둘로 만들어도 일찍이 떨어지지 않고 합하여 하나로 만들어도 사실은 서로 섞이지 않은 뒤에야 두로 갖추어져서 편벽됨이 없는 것이 됩니다.

다시 성현의 말씀으로써 반드시 그렇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옛날 공자께서는 繼善 成性の 論이 있었고, 周子는 無極 太極의 설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이·기가 서로 따르는 가운데서 떼어 내어 理만을 말

한 것이고, 공자께서 말씀하신 相近 相遠의 性과 맹자가 말한 이목구비의 성은 모두 이·기가 서로 이루어진 가운데서 겹하여 가리켰으나 기를 주로 하여 (겹하여 가리켰다는 이하는, 구본에는 “한 쪽만을 가리켜 ‘기’만을 말한 것이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말한 것이니, 이 네 가지가 어찌 같은 가운데서 다름이 있음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사가 중화를 논하면서 희·노·애·락만을 말하고 사단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程子가 好學을 논하면서 의·노·애·구·애·오·욕만을 말하고 사단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기가 서로 따르는 가운데서 이·기를 혼합하여 말한 것이니, 이 두 가지가 어찌 다른 가운데서 같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대의 변론은 이와 달라서 合同하기를 기뻐하고 分離하기를 미워하며 하나로 뭉뚱그리기를 좋아하고 일률적으로 분석하기를 싫어하여 사단·칠정의 所從來는 따지지도 않고서 일률적으로 이·기를 겹하며 선·악이 있다고 여겨, 깊이 분별하여 말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중간에 비록 “理는 약하고 氣는 강하며, ‘이’는 조짐이 없고 ‘기’는 흔적이 있다.”는 말이 있기는 하나, 끝에 가서는 곧 ‘기’가 자연히 발하는 것을 ‘이’의 본체가 그러한 것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드디어 이·기를 참으로 일물로 여겨 분별하지 않은 것인 듯합니다. 만약 ‘이’와 ‘기’를 참으로 일물로 여겨 구분한 바가 없었다면 내가 감히 알 바가 아니겠으나, 그렇지 않고 그대도 과연 일물이 아니라고 여겨 분별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본체란 말 밑에 然也란 두 글자를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천명도에서 분별하여 말한 것만을 가지고 불가하다고 하십니까? (드디어 [似遂以] 이하는, 구본에는 “드디어 이·기를 일물로 여겨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세 羅整菴이 이와 기는 두 가지가 아니라는 설을 주장하며 심지어 朱子의 설을 그르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나는 학문이 천박하여 그 뜻을 깨닫지는 못하였으나, 보내주신 편지의 뜻이 역시 이와 흡사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또 보내온 글에 이미 자사와 맹자가 가리켜 말한 바와 다르다고 하

고, 또 사단을 선한 한 편만을 떼어 낸 것이라고 해놓고서, 도리어 사단·칠정에는 다른 뜻이 없다고 한 것은 스스로 서로 모순되는 데 가깝지 않습니까. 학문을 강론하면서 분석을 싫어하고 합하여 一說로 만들기를 힘쓰는 것을 옛사람이 鵲圖吞棗라 하였으니, 그 병통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차츰 氣를 性으로 논하는 폐단에 빠지고 人慾을 오인하여 天理로 여기는 병통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어찌 가하다 하겠습니까.

보내 온 편지를 받고서 즉시 나의 소견을 전하려 하였으나, 감히 나의 소견이 반드시 옳아서 의심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도록 속에만 담아두고 발설하지 않았더니, 근래 朱子語類를 보건대, 맹자의 사단을 논한 마지막 1조에 바로 이 일을 논하였는데, 그 말에 “사단은 바로 ‘이’의 발이고 [四端是理之發], 칠정은 바로 ‘기’의 발이다. [七情是氣之發]” 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자신을 믿지 말고 스승을 믿으라고 옛사람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자는 내가 스승으로 여기는 바이고, 또 천하 고금이 宗師하는 분이십니다. 주자의 이 말씀을 보고서야 비로소 나의 소견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당초 鄭生의 설 역시 병통이 없으니 고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나의 변변치 못한 소견을 대략 진술하여 가르침을 청하니, 모르겠습니까만 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理가 비록 이와 같지만 名言하는 사이에 분명하지 못하여 誤差가 있을 수 있으니 先儒의 舊說을 따르는 것만 못하다고 한다면, 주자의 本說로 대신하고 우리의 설은 버리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의 생각에는 어떠합니까?

전번에 떨어져 글을 보내고, 論誨한 四端七情書 1책까지 보내주었으니, 어리석고 망령된 이 사람을 버리지 않고 諄諄(曲盡)히 깨우쳐 주는 뜻이 지극히 간절하였습니다. 마침 조금 번잡한 일이 있어서 그 문제에 마음을 다해 궁구할 수가 없어 곧 스스로 편리한 대로 우선 대략 답장을 써서 돌아가는 인편에 부쳐 보낸 뒤에, 비로소 질병이 조금 나은 여가에 공의 글을 자세히 읽고 그 뜻을 연구하여 緒論의 대략을 엿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이 깊고 인용이 해박하며 변론이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어서, 늙은 사람의 衰耗한 정력으로는 허다한 의리를 포괄할 수 없어, 마치 龍門에 물을 터놓고서 조각배로써 그 원류를 찾으려는 것과 같았으니 역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을 두고 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간 나머지 작은 물줄기의 끝이라도 보게 된다면 나의 前說의 잘못을 알 수 있고, 또 따라서 새로이 알게 되는 이익도 있을 것이니, 학문이 강론에 힘입는 바가 어찌 적다 하겠습니까. 매우 다행으로 여깁니다.

내 설이 잘못되었다고 한 곳에 대하여 改修하여 前面에 기록해서 가부를 물었고, 또 공의 변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목에 따라 대답하여 나의 뜻을 드러내고 싶었지만 전후의 여러 說들이 서로 얽히고 얽혀 정연하게 소통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본문의 차례에 따라 설명하자니 그 사정이 산만하고 중복됨을 면할 수 없어, 도리어 흐리멍텅하고 막히게 될 듯하므로 삼가 全篇을 가지고서 조목마다 그 大要만을 뽑아 같은 것끼리 모아서 대략이나마 차례가 있게 하였습니다. 다시 어리석은 나의 소견으로 헤아려 보건대 異同과 從違 사이에 또 의사가 歸一되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대개 공의 말에 본래 병통이 없는데 내가 착각하여 妄論한 것도 있고, 공의 편지를 받고서 나의 말이 마땅하지 않음을 깨달은 것도 있고, 영공 편지의 내용이 내가 들은 바와 근본이 같아서 다름이 없는 것도 있고, 근본은 같으면서 취지가 다른 것도 있으며, 의견이 달라서 서로 따를 수 없는 것도 있으니, 이제 이 다섯 가지를 이하와 같이 종류에 따라 나누어 조목조목 열거하였습니다.

제 10절에, ‘기’가 자연히 發現하는 것이 바로 ‘이’의 본체가 그러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하여(주신 편지에는 나의 지난 번 편지를 나누어 12절로 만드셨습니다.)

이상의 1조는 공의 말이 본래 병통이 없는데, 내가 잘못 보고서 妄論했던 것이므로 이미 개정하였습니다.

제 6절에, 칠정이 오로지 ‘기’만이 아니라는 설과, 節同속에 두 번째 辯曰 항목에 ‘정’이 비록 환경에 따라 나오는 것이지만 사실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설과 동절 일곱 변왕 항목에 선악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

제 9절에, 한 쪽만을 가리켜 ‘기’만을 말했다는 설.

이상 네 조항은 그대의 편지를 받고서 나의 말이 마땅하지 않음을 깨닫고서 이미 개정하였습니다.

제 1절에, 朱子語類에서 心性情을 논한 것을 인용한 세 조항.

제 4절에, 주자가 陳潛室에게 답한 글을 인용하여 가리켜 말한 바와 같지 않다는 것을 밝힌 것.

제 5절에, 주자의 설을 인용하여 제 1 조에서 ‘기’와 성이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과, 제 2 조에서 기품이 다르기 때문에 천명도 다르니 역시 ‘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것과, 제 3 조에서 천명의 성은 본원의 궁극의 성이라고 한 것과, 제 5 조에서 程子和 張子が 비로소 기질을 말했다는 것.

제 6절에, 中庸 章句와 或問과, 延平의 설과, 程子の 好學論과, 주자의 動靜說을 인용하여, 칠정이 이·기를 겸하였다는 것을 밝힌 것.

이상 13개의 조항은 나의 견문과 근본이 같아 다름이 없으므로 이상의 것은 재론하지 않습니다.

제 1절에, 천지의 性是 오로지 理만을 가리켜 말하고, 기질의 성은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하며, 이의 發이라고 한 것은 진실로 그러하지만 기의 발이라고 한 말은 오로지 기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것.

제 5절에, 천지와 人物을 ‘이’와 ‘기’로 분별하는 것은 해로울 것이 없지만, 만약 性を 가지고 논하면 理가 ‘기’ 속에 떨어져 있는 것이며 만약 ‘정’을 가지고 논하면 ‘성’이 기질 속으로 떨어져서 ‘이’와 ‘기’를 겸하고 선과 악이 있는 것이니 分屬하는 것은 未安하다고 한 것.

제 6절 첫 번째 辯曰 항목에 칠정도 역시 인·의·예·지에서 발한다고 한 것과, 세 번째 변왈 항목에 따로 하나의 ‘정’이 ‘이’에서만 나오고 ‘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속에 理가 없는데 외물이 와서 우연히 서로 감동되는 것이 아니며 외물에 감동하는 것은 사단도 같다는 것과, 다섯 번째 변왈 항목에 이미 발하면 바로 ‘기’를 타고서 행한다……한 것과, 사단도 역시 ‘기’라고 한 것.

제 7절에, 그 근원을 이루어보면 원래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제 9절에, 무릇 ‘성’이라 말한 것은 편벽되어 ‘기’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한 것과 칠정 역시 이·기를 겸했다는 것.

이상 8개 조항은 근본은 같으나 취지가 다릅니다.

제 1절에, 내용은 같으면서 이름이 다르다는 것과, 칠정 밖에 다시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단·칠정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제 2절에, 泛論하면 불가할 것이 없지만, 그림으로 만들어 분석한 것은 너무 심하여 사람들을 그르치게 될까 두렵다는 것과, 혹 선하지 않음이 없다 하기도 하고 선·악이 있다고 하기도 한다면 사람들이 두 개의 ‘정’이 있고 두 가지의 선이 있다고 의심할까 두렵다는 것.

제 4절에, 보낸 변론에는 사단·칠정이 각각 所從來가 있으니, 말한 것만이 같지 않을 뿐이 아니라고 한 것.

제 5절에, 주자의 설을 인용한 제 4 조에 맹자는 한 쪽만을 떼어 내어 말하고 伊川은 겸하여 말하였으나, 요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고 한 것.

제 6절 다섯 번째 변왈 항목에 보내 온 변론에서 칠정은 밖으로 形氣에 감동된 것이니 理의 본체가 아니라고 한 것은 매우 불가하다. 만약 이 말과 같다면 칠정은 성 바깥의 物이다……맹자가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어찌 理의 본체가 아니겠는가라고 한 것과, 일곱 번째 변왈 항목에 하나라도 두어 잘 살피지 않는다는 것과, 그 끝에 논

한 소종래와 所主의 설을 그르게 여긴 것.

제 12절에, 주자도 誤認하고서 心은 已發이라는 말을 하였다가 오랜 뒤에야 깨달았다고 하고서 이어 주자가 말한 理發·氣發의 말은 우연히 발언한 것으로 편벽되게 가리킨 것이라고 한 것.

이상의 9개 조항은 의견이 서로 달라서 끝내 따를 수 없습니다. 이상의 열 조항에 대해서는 모두 변론하여 뒤에 기록하였습니다.

보내 온 편지의 내용이 비록 縱橫으로 변화하고 많은 논리를 전개하였으나, 요약해서 말하면 내가 잘못 본[錯看]한 조항을 제외하면 대체로 4截이 되고 또 네 절을 요약해서 말하면 두 절이 되는 데 불과합니다. 어째서인가 하면 그대의 편지를 받고서 나의 타당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은 곳은 진실로 모두 근본이 같은 종류이니, 근본이 같으면서 취지가 다른 것도 끝내 따를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시험삼아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이와 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고 칠정이 이·기를 겸하였다는 것은 나도 일찍이 先儒들의 설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전의 변론에서 누누히 말하여, 性情을 통론한 데에서는 이가 없는 기가 없고 또한 기가 없는 이도 없다고 하였고, 사단을 논한 데에서는 心은 진실로 이·기의 혼합이라고 하였으며, 칠정을 논한 데에서는 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한 종류가 한두 곳이 아니었으니 나의 소견이 제 2 절 13조에서 말한 공의 변론과 무엇이 다르니까. 그런데도 제 1 절 4조에 差說이 있음을 면치 못한 것은 연구하여 마음에 터득한 바가 없는 口耳之學으로 마음대로 헤아려 말하였기 때문에 타당함을 상실하여 병통이 있게 된 것이니, 매우 두렵습니다. 그러나 공이 다시 개정한 나의 말을 자세히 보면 그대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깨달은 바가 있어 이내 本同의 뜻으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朱子가 “孔穎達이 撲法(점을 칠 때 蓍草를 세어 卦를 얻는 법)을 모른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익숙하게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리기가 쉬웠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君子가 사람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말입



닐아. 그러나 내가 학문을 논하는 데 이와 같이 쉽게 틀리는 것은 이  
 心を 참으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당하게 自處할 줄 몰라서이니, 입  
 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견이 없지 않  
 은데도, 그 설을 다 말하지 않는다면 또 학문을 講磨하여 求益하는 도  
 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견이 같은 앞의 두 절은 논하지 않고, 뒤의  
 두 절에 대해서만 감히 구차히 의견을 같이 할 수 없는 뜻을 논하겠습니다.

사단이 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칠정이 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公만이 말했을 뿐이 아니고 나 역시 그렇게 말하였으며, 우리 두 사람  
 만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 아니고 先儒들도 그렇게 말하였는데, 선유들  
 께서 어거지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바와 사람이 받  
 은 바의 원류와 맥락이 본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와 나의 소  
 견이 시작에서는 같으나 끝에서는 다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공  
 의 생각에는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기를 겸하였으므로 실지는 같으면  
 서 이름만이 다른 것이니 이와 기에 分屬에서는 안 된다고 여기고, 나  
 의 생각에는, 다른 가운데에 나아가서 같은 것이 있음을 볼 수 있기 때  
 문에 두 가지를 진실로 혼합하여 말한 것이 많으며, 많은 가운데에 나  
 아가서 다름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리켜 말한 데에  
 는 자연 主理와 主氣의 같지 않음이 있는 것이니, 사단·칠정을 이·기  
 에 분속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는가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이치에 대한 전날의 말이 비록 허물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宗旨  
 는 실로 所從來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의 변론에서는 한결같  
 이 모두 배척하여 글귀 하나 글자 하나도 그대로 넘긴 것이 없으니, 지  
 금 다시 論說하여 그러한 까닭을 밝힌다 하더라도 공에게 나의 말을 믿  
 게 하는 데는 도움이 없고 다만 시끄럽게 구는 허물만 얻게 될까 두렵  
 습니다.

辯誨에 “천지의 성[天地之性]은 오로지 理만을 가리킨 것이고 기질의  
 성[氣質之性]은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니, 사단이 理發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러하지만, 칠정이 氣發이라는 것은 오로지 ‘기’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천지의 ‘성’은 오로지 ‘이’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기는 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이에는 다만 ‘이’만 있고 ‘기’는 없는 것입니까. 천하에 기가 없는 이가 없으니 ‘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로지 理만을 가리켜 말할 수 있다면 기질의 ‘성’이 비록 이·기가 섞여 있지만 어찌 ‘기’만을 가리켜 말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는 ‘이’가 主가 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말하였고, 하나는 ‘기’가 主가 되기 때문에 ‘기’를 가지고 말한 것뿐입니다. 사단에 ‘기’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理發이라 하며, 칠정에 ‘이’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氣發이라고만 말하는 것도 그 뜻이 이와 같습니다. 공은 사단이 이발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바꿀 수 없는 정론이라 하고, 칠정이 기발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오로지 ‘기’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한 마디 말을 잘라서 두 가지 뜻으로 본 것은 어찌서입니까. 만약 진실로 오로지 ‘기’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겸하여 ‘이’도 가리킨 것이라면 주자가 여기에서 기발이란 말을 이발고 對學하여 중첩하여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辯誨에 “천지·인물을 가지고 이·기로 나눈다면 해로울 것이 없지만, ‘성’을 가지고 논하면 ‘이’가 기질 속에 떨어져 있는 것이며, 그 ‘정’을 논하면 ‘성’이 기질 속에 떨어져 있어 이·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으나, 이·기에 分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천지·인물로써 보건대 理가 氣 밖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분별하여 말하였으니, 그렇다면 성을 논하고 정을 논함에 있어 비록 ‘이’가 ‘기’속에 있고 성이 기질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찌 분별하여 말할 수 없겠습니까.

대개 사람의 한 몸은 ‘이’와 ‘기’가 합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기’ 두 가지가 서로 발하여 쓰임이 되고, 또 그 발할 때는 서로 따르는

것입니다. 서로 발한다면[互發] 각각 주가 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서로 따른다면[相須] 함께 그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혼합하여 말하는 자도 있지만, 각각 주가 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여 말하여도 불가함이 없습니다.

성을 논하면 이가 기 속에 있는 것인데도 자사와 맹자는 본연의 성[本然之性]을 지적하였고 程子和 張子는 오히려 기질의 성[氣質之性]을 지적해 논하였는데, 어찌 정을 논하는 데에서만 ‘성’이 기질 속에 있는 것이라하여 각각 말하는 바에 따라 사단·칠정의 所從來를 나누어 말할 수 없겠습니까. 理·氣를 겸하고 선·악이 있는 것은 情 뿐만이 아니라 性도 그러한데, 어찌 이것으로써 분별할 수 없다는 증거로 삼을 수 없겠습니까.(理가 기질 속에 떨어져 있다는 곳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性도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辯誨에 “칠정도 인의예지에서 발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곧 이른바 同에서 同을 본다는 것이니, 사단·칠정을 진실로 혼합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만 있고 이가 없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변회에 “따로 하나의 정이 있어서 理에서만 나오고 기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단이 발하는데 진실로 기가 없지 않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맹자가 가리킨 바는 진실로 기에서 발하는 곳에 있지 않았으니, 만약 기까지 겸하여 가리킨 것이라 한다면 이미 다시 맹자가 말한 사단을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변회에서는 어찌서 사단이 理發이란 것은 不易의 정론이라 하였습니다.

변회에 “속에 이 이치가 없이 외물이 우연히 서로 감동되는 것이 아니

니, 물에 감응되어 움직이는 것은 사단도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설은 진실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단에 인용한 樂記에 대한 朱子의 설은 모두 이른바 혼합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여 말하는 것을 공박한다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분별하여 말했다는 것도 내가 있지도 않은 것을 아무렇게나 만들어 낸 의논이 아니라 천지 사이에는 원래 이러한 이치가 있고, 옛사람들도 원래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은 하나만을 고집하여 다른 하나는 폐하고자 하니 편벽된 것이 아닌지요. 대개 혼합하여 말할 경우 칠정이 이·기를 겸하였다가는 것은 많은 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분명하지만, 칠정을 사단과 對舉하여 각각 구분하여 말하면 칠정이 ‘기’와의 관계가 마치 사단이 ‘이’와의 관계와 같아 그 발하는 데 각각 血脈이 있고, 그 이름에 모두 가리키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주된 바에 따라 이·기에 分屬할 수 있습니다. 나도 칠정이 理와 관계없이 외물이 우연히 서로 모여 감동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외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은 진실로 칠정과 다르지 않지만, 사단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일 뿐입니다.

변화에 “이미 발하면 ‘이’가 ‘기’를 타고 운행되는 것이니……사단도 ‘기’이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단도 ‘기’라는 것을 앞뒤에서 누차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제자의 물음에 답하여 朱子의 말씀을 이끌어 매우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은 맹자가 말한 사단도 氣의 발로 보는 것입니다. 가령 氣發로 본다면, 이른바 仁之端·義之端이라 한 인·의·예·지 네 글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가령 약간의 ‘기’가 섞인 것으로 본다면 순수한 천리의 본연이 아니며, 순수한 천리로 본다면 그 발하는 단서는 정녕 和泥帶水(순수하지 못하고 혼합)한 物件이 아님

니다. 공은 인·의·예·지를 未發 때의 명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純理라 하고, 사단은 已發 이후의 명칭이므로 ‘기’가 아니면 행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단 역시 ‘기’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단도 비록 ‘기’를 탄다고는 하겠으나, 맹자가 가리킨 바는 ‘기’를 타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순수한 이가 발하는 데에만 있었기 때문에 仁之端·義之端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後賢들도 맹자의 말씀을 가리켜 이·기가 混有한 가운데서 ‘이’만을 떼어 내어 선한 한 쪽만을 말한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기’를 겸하여 말하였다면 이미 뒤섞인 것 [泥水] 에 가깝다 하였으니, 이런 말을 모두 붙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사람의 말을 타고 출입하는 것으로써 理가 氣를 타고 운행하는 것에 비유한 것은 참으로 좋은 비유입니다. 대체로 사람은 말이 아니면 출입하지 못하고, 말은 사람이 아니면 길을 잃게 되니, 사람과 말이 서로 따르고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말하는 자가 혹 넓은 의미로 가리켜 가는 것만을 말하면 사람과 말이 모두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 사단·칠정을 혼합하여 말하는 것이 이것이고, 혹 사람이 가는 것만 가리켜 말하면 말까지 아울러 말하지 않더라도 말이 가는 것도 그 가운데 있으니 사단이 이것이고, 혹 말이 가는 것만을 가리켜 말하면 사람까지 아울러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가는 것도 그 가운데 있으니 칠정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은 내가 분별하여 사단·칠정을 말하는 것을 보고는 매양 혼합하여 말해야 한다는 말을 이끌어 공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사람이 간다. 말이 간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서 사람과 말은 하나이니 나누어 말할 수 없다고 力說하는 것이며, 또 내가 칠정을 氣發이라고 말한 것을 보고는 已發을 역설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말이 간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반드시 사람도 간다고 하는 것이며, 내가 사단을 이발이라고 말한 것을 보고는 또 기발을 역설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사람이 간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반드시 말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朱子가 이른바 숭바꼭질이란 것과 흡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회에 “그 근원을 미루어 보면 원래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같은 곳 [同處] 으로서 논하면 두 가지 뜻이 있지 않다는 말이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만약 두 가지를 對舉하여 그 근원을 미루어 본다면 실로 이·기의 구분이 있는데, 어찌 다름이[異處] 없다 하겠습니까.

변회에 “무릇 성을 말한 것은 氣 한 쪽만을 가리킨 것이 아닌데, 지금 선생께서는 한 쪽만을 가리켜 ‘기’만을 말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아마도 옳지 않은 듯합니다. 또 변론에 ‘자사가 中和를 논한 것은 이·기를 혼잡하여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칠정이 어찌 이·기를 겸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성을 말하는데 기를 가리켜 말한 것이 없지 않습니 다만, 다만 나의 이론에 偏·獨 두 글자가 과연 병통이 있는 듯하므로 그대의 가르침에 따라 이미 고쳤습니다. 그러나 칠정이 이·기를 겸하였다고 혼란해서 말한 것과는 가리킨 바가 본래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은 이것을 가지고서 나의 설이 출입이 없지 않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출입한 것이 아니고, 가리킨 바가 같지 않으므로 말도 다르지 않을 수 없어서일 뿐입니다.

변회에 “내용은 같으면서 이름이 다른 것이지, 칠정 밖에 다시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니니, 사단과 칠정에 다른 뜻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같은 가운데서 진실로 理發·氣發의 구분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달리 명칭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만약 본래 다른 바가 없다면 어찌 다른 명칭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비록 칠정 밖에 다시 사단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드디어 사단과 칠정에 다른 뜻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불가할 듯합니다.

변회에 “泛論하여 사단은 이에서 발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 없지만, 그림으로 만들어 사단을 理圈에 놓고 칠정을 氣圈에 놓아 너무 심히 분석한 것은 사람들을 그르침이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하다면 다 가하고 불가하다면 다 불가합니다. 어찌 泛論하면 이발·기발로 나누는 것이 불가하지 않고, 그림으로 만들면 理圈·氣圈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유독 불가하겠습니까. 하물며 圖中에 사단·칠정이 실로 같은 圈內에 있으나 약간의 表裏가 있으므로 그 옆에 구분하여 주석을 달았을 뿐이고, 애당초에 이권·기권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변회에 “혹 선하지 않음이 없다고도 하고 혹 선·악이 있다고도 한다면 사람들이 마치 두 가지의 情이 있고 두 가지의 善이 있는 것처럼 의심할까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純理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음이 없고 兼氣이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는 이 말은 본래 이치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는 자 [知者]는 같은 가운데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다른 가운데에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니, 어찌 알지 못하는 자 [不知者]가 잘못 인식할 것을 걱정하여 이치에 맞는 말을 廢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圖上에는 다만 朱子의 말씀만을 채용하여 썼기 때문에 이 말은 제거하였습니다.

변회에 “보내 온 변론대로라면 사단·칠정이 각기 所從來가 있는 것이니, 비단 말한 것이 다를 뿐만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단·칠정이 비록 같은 情이기는 하지만 소종래의 다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성현들이 사단·칠정을 말씀하신 것에 같지 않음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사단·칠정의 소종래가 본래 다름이 없다면 사단·칠정을 말함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같지 않음이 있겠습니까. 孔門에서는 이 사단·칠정을 갖추어 말씀하지 않았고 자사가 그 전체를 말씀하셨으니, 이때에는 진실로 소종래의 說이 필요없었지만, 맹자가 한 편을 떼어 내어 사단을 설명할 때에 이르러서는 어찌 理發의 한 편만을 가리켜 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단의 소종래가 이미 理라면 칠정의 소종래가 氣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변회에, 맹자는 理만을 떼어 내어 말하였고 程子(伊川)는 기질을 겸하여 말하였으나 요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주자의 설을 인용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공이 이 말을 인용한 것은 대개 성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정은 구분할 수 없음을 밝힐 것 뿐인 듯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주자의 말에, “성이 비록 기 속에 있지만 ‘기’는 스스로 ‘기’이고 ‘성’은 스스로 ‘성’이어서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주자가 맹자께서 한 쪽만을 떼어 내어 말한 것과 정자가 기질을 겸하여 말한 것을 가지고 말하면서 “요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고 한 것은 바로 내가 이른바 다른 가운데에서 같음이 있음을 본다는 것이고, ‘성’이 ‘기’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면서 “‘기’는 ‘기’이고, ‘성’은 ‘성’이어서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한 것은 바로 내가 이른바 같은 가운데에서 다름이 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변회에 “보내 온 변론에 ‘칠정은 밖으로 形氣에 감동된 것이니 理의 본체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매우 불가하다. 만약 말대로라면 칠정은 바로 性 바깥의 것이다……맹자가 기빠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



이 어찌 理의 본체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당초에 謬說(이치에 어긋난 말)로써 “외물에 감응되었다면 형기인데 그 발하는 것이 어찌 理의 본체가 되겠는가.”라고 한 것은, 감응할 때에는 바로 氣이던 것이 발할 때에는 바로 理가 되는 이런 이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분명하지 못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미 고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 온 그대의 편지에서는 나의 글을 변경하여 바로 “밖으로 형기에 감응된 것이니 理의 본체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미 나의 본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꾸짖어 말하기를 “만약 그 말대로라면 칠정은 바로 性 바깥의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朱子가 “칠정은 바로 ‘기의 발 [氣之發]’이다.”라고 한 것 역시 칠정을 ‘성’ 바깥의 것으로 여긴 것이란 말입니까.

대개 理가 발함에 氣가 따른다는 것은 ‘이’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일 뿐이고, ‘이’가 ‘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함이 아니니 사단이 바로 그것이고, ‘기’가 발함에 ‘이’가 된다는 것은, ‘기’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일 뿐이고, ‘기’가 ‘이’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함이 아니니 칠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맹자의 기쁨[喜],<sup>12)</sup> 舜의 노여움[怒],<sup>13)</sup> 공자의 슬픔[哀]과 즐거움[樂]<sup>14)</sup>은 ‘기’가 ‘이’를 따라 발하여서 털끝만한 걸림도 없기 때문에 ‘이’의 본체가 渾全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친한 사람을 보면 기뻐[喜]하고 상을 당하면 슬퍼[哀]하는 것 역시 ‘기’가 ‘이’를 따라 발하는 것이지만, 다만 그 ‘기’가 가지런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이’의 본체 역시 純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논한다면 비록 칠정을 ‘기’의

12) 맹자의 기쁨[喜] : 樂正子が 정사를 맡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맹자는 기뻐서 [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다. 孟子 告子下.

13) 舜의 노여움[怒] : 순이 四凶에게 노하여 그들을 죽였으나 사흉이 없어지자 그 노여움도 따라서 없어졌다고 한다. 論語 雍也 好學章 註.

14) 공자의 슬픔[哀]과 즐거움[樂] : 顏淵이 죽었을 적에 애통해 한 것과, 閔子·子路·冉有·子貢이 모시고 있을 때 공자가 기뻐한[樂] 것을 말한다. 論語 先進.

발이라고 하더라도 ‘이’의 본체에 무엇이 해롭겠으며, 또 어찌 형기와 성정이 서로 관계되지 않을 염려가 있겠습니까.

변화에 “보내 온 변론에는 ‘하나라도 있는데 잘 살피지 않으면 마음과 바름을 얻지 못하니 반드시 발하여 절도에 맞은 뒤에야 和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 칠정은 번잡하여 쓸데없는 것이 됨이 심하여 도리어 마음의 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곳에 대한 前說의 語意가 앞뒤의 차례를 잃었기 때문에 병통이 있다고 여겨 지금 이미 고쳤는데, 여기에는 그대의 가르침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편지에서는 또 “하나라도 있는데 잘 살피지 않는다.[一有之而不能察]”는 말은 바로 正心の 일이니, 이 말을 인용하여 칠정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배척했습니다. 그대의 이 말이 그럴 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이 말이 비록 大學 正心章의 말이기는 하지만, 이 한 절은 喜·怒·憂·懼를 마음 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써 마음의 병통을 설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병통을 알아 약을 쓰게 한 것일 뿐, 정심의 경지를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저 네 가지가 마음의 해가 되기 쉬운 이유는 바로 ‘기’가 발하는 바가 본래 선하다 하더라도 악으로 흐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理가 발하는 것이라면 어찌 이런 병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또 어찌 마음에 惻隱한 바가 있으면 마음이 바름을 얻지 못하고 마음에 羞惡하는 바가 있으면 마음이 바름을 얻지 못한다고 할 수야 있겠습니까.

定性書(程顥가 張載에게 답한 글)에 “사람의 마음이 쉽게 발하고 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는 오직 노여움이 가장 심함이 되니, 일단 노여울 때에 서둘러 그 노여움을 잊어버리고 理의 是非를 보면 역시 外誘가 미워할 것이 못됨을 알게 될 것이다.”하였으나, 이상에서 이른바 쉽게 발하고 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理입니까. 아니면 氣입니까. 理라면 어찌 억제하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오직 氣이기 때문에 급히 내달아 제어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여움이 理에서 발한 것이라면 어찌 노여움을 잊어버리고 理를 살피라고 하였겠습니까. 오직 氣에서 발하기 때문에 노여움을 잊어버리고 ‘이’를 살피라고 한 것이니, 이것은 바로 理로써 氣를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말을 인용하여 칠정이 ‘기’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어째서 타당치 않겠습니까.

同 上節의 말단에 “그 所從來에 따라 각각 主가 되는 바를 가리켰다.”는 설을 그르다고 논하였으며, 또 “변론함이 말하는 사이에 불가한 바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性情의 실상과 存養·省察의 공부에도 모두 불가함이 있을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소종래와 주가 되는 바에 대한 설은 전후의 변론으로 인하여 분명해졌으니 다시 여기에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이에 성정의 진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未安한 곳은 혹은 그대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 깨닫기도 하여 이미 고쳤습니다. 미안한 곳의 말을 빼버리고 고쳐놓고 보니, 義理가 밝게 통하고 배열된 말들이 분명하여 玲瓏하게 눈에 들어와서 거의 모호한 병통이 없으니, 저 존양·성찰의 공부에 대하여 감히 참람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아마도 크게 잘못되는 데는 이르지 않은 듯합니다.

변화에 “朱子가 잘못 인식하고서 心を 已發이라고 하였다가 오랜 뒤에 깨달았다고 하고서, 이어 주자가 사단을 理發이고 칠정은 氣發이라 한 말씨는 우연히 발언하여 한 쪽만을 가리킨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공의 이 文段의 어의를 보건대, 마치 주자의 설을 만족스러워 하지 않는 것 같으니, 이것이 더욱 미안합니다. 저 程·朱의 語錄에도 진실로 때로 差誤가 있음을 면치 못하였으나, 이는 곧 辭說을 펴고 敷衍하여 義理의 중요한 곳을 밝힌 곳에 대하여 기록한 자의 식견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여 더러 그 본뜻을 잃은 곳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一段으로 말하면 몇 구절의 간략한 말씀과 單傳(여러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전함) 密付(은밀히 부탁함)한 뜻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補漢卿<sup>15)</sup>입니다. 그는 실로 주자 문하에서 제일 가는 사람인데, 그가 이것을 잘못 기록하였다면 어찌 보한경이 될 수 있었습니까.

가령 나의 벗이 평소에 語類를 보다가 이 말을 보았다면 반드시 이곳에 의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지금 나의 설을 그르게 여겨 극력 변박하자니 내가 높이는 주자의 이 말까지 아울러 指斥하고서야 나의 설이 잘못되었음을 판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자까지 連累시킴이 이에 이르렀으니, 이는 진실로 내가 참람하게 주자의 설을 인용한 죄입니다. 그러나 나는 벗의 이런 점에서 道를 임무로 여겨 擔當하려는 용기에는 탄복하지만, 어찌 마음을 겸허하게 가지고 뜻을 겸손히 가지지 못하는 병통이 없다 하겠습니까. 계속 이와 같이 해간다면 혹시 성현의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의 생각에 맞추는 폐단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顏子는 있되 없는 것같이 하고[有若無], 찻도 빈 것 같이 하여[實若虛], 오직 義理의 無窮함을 알고 物我[상대와 나]의 간격이 있음을 보지 않았으니, 모르겠습니다만 안자에게도 그대같은 기상이 있었겠습니까.

朱先生의 剛勇은 白世에 一人이십니다.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자기 의견에 잘못이 있거나 자기 말에 미안한 곳이 있음을 깨달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남의 말을 받아들여 즉시 고치셨습니다. 비록 말년에 道가 높아지고 德이 성대해진 뒤에도 오히려 그러하셨는데, 어찌 겨우 성현의 도를 배우는 길에 첫발을 내디뎠을 적에 이미 나에게 잘못이 없다 하여 윗자리에 있겠습니까. 진실한 강직함과 진실한 용기는 氣를 왕성하게 하여 疆說(억지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허물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않고 義를 들으면 즉시 복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15) 補漢卿 : 남송 때의 학자로 이름 廣, 호는 潛菴, 한경은 그의 자이다. 주자의 제자로 僞學을 금하던 宋 寧宗 초년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흩어져 돌아갔으나 한경만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니 주자가 매우 신임하였다. 宋元學案 64.

## 第二書 後論

변희의 글을 보건대, 宏大한 언론이 重疊으로 나타나서 넓고 높은 식견이 보통에서 크게 뛰어나니, 나는 望洋向若의 탄식<sup>16)</sup>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좁은 소견에 의심스러운 생각이 없을 곳이 있으므로 이미 앞서 삼가 갖추어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後論의 나머지 辯誨에서 잘못을 바로잡음이 더욱 간절하였으니, 그대의 사람을 사랑하여 마치 아니하는 고마움을 입었습니다.

天命圖 속에 理와 氣 두 글자로 虛와 靈 두 글자 밑에 나누어 註釋한 것은 나도 靜而(鄭之雲의 자)의 本說을 그대로 두기는 하였으나, 그 분석한 바가 너무 瑣細하다는 의심이 들어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붓에 먹물을 찍어 지우고자 했던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 새로운 설을 창시한 것을 기뻐하여 그대로 두었습니다. 지금 그대의 가르침을 받고서 마음이 석연해졌으니, 정이에게 말하고서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여러 설에 있어서는 의견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니 다 따를 수 없습니다. 그대가 인용한 바 朱先生이 胡廣仲·胡伯逢에게 답한 글과, 性圖 등 세 조항은 모두 사단·칠정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데 불과하니, 이것이 바로 전에 이른바 渾淪하여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칠정을 사단에 상대시키자면 나누어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였는데, 이는 前說에 이미 다 말하였으니 번거롭게 다시 논할 것이 없습니다.

虛靈을 논한 곳에서 虛를 理라고 말한 데 이르러서는 역시 근본한 곳이 있으니, 이·기 두 글자를 허·영에 나누어 주석한 잘못 때문에 이

16) 望洋向若의 탄식 : 좁은 소견으로 엄청나게 높은 식견을 따라갈 수 없다는 탄식. 江의 물귀신 河伯이 북해에 이르러 끝없이 넓은 바다를 보고서 바다 귀신 若에게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다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莊子 秋水篇.

것까지 아울러 잘못으로 여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그대의 변회에서 인용한 몇 가지 설을 가지고 논하건대 朱子는, “지극히 虛한 가운데 지극히 實한 것이 있다.”하였으니, 이것은 허하면서도 실하다는 것을 말한 것일 뿐, 허가 없다는 것을 이름이 아니며, “지극히 無한 가운데 지극히 有한 것이 있다.”하였으니, 이것은 無하면서 有하다는 것을 말한 것일 뿐, 無가 없다는 것을 이름이 아닙니다.

程子가 或人에게 답하기를 “역시 太虛는 없다.”하고서 드디어 虛를 가리켜 而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정자 역시 ‘허’를 가지고 ‘실’을 인식하게 하고자 한 것일 뿐, 본래 ‘허’는 없고 다만 ‘실’만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程子·張子 이후로 虛를 而로 말한 것이 적지 않았으나, 이를테면 程子가 “道는 太虛이고 形而上이다.”하고, 장자가 “허와 기를 합하여 性의 이름이 있다.”하고, 주자가 “형이상의 허가 혼연한 도리이다.”하고, 또 “태허는 바로 太極圖 圖上의 한 동그라미이다.”라고 한 것 같은 것으로 이와 같은 종류는 하나하나 다 들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주자가 無極而太極을 논한 곳에 이르러서는 역시 무극을 말하지 않으면 태극이 一物이 되어 萬化의 근본이 될 수 없고, 태극을 말하지 않으면 무극이 空寂에 빠져 만화의 근본이 될 수 없다.” 하였습니니다. 아, 이와 같은 말들은 사방팔면에 두루하여 치우치지 않고 두들겨도 깨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한갓 理의 실상만을 밝히고자하여 드디어 理를 虛가 아니라고 하니, 그렇다면 周子·程子·張子·朱子등 여러 大儒의 論을 모두 廢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周易의 ‘形而上’과 中庸의 ‘無聲無臭’를 老莊의 虛無의 설과 함께 도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돌리겠습니까. 공은 虛字의 폐단이 장차 학자들로 하여금 모두 허무의 논을 하여 老佛의 지경에 빠지게 하지나 않을까 염려하나, 나 역시 虛字를 쓰지 않고 實字만을 고수하면 장차 학자들로 하여금 멋대로 상상하고 헤아려 진실로 無位真人<sup>17)</sup>과 谷神酋長<sup>18)</sup>의 변칙이는 것이 저기<sup>19)</sup>에 있다고 여기

17) 無位真人：虛無의 道를 깨달은 도가의 真人.

게 하거나 앓을까 염려됩니다.

또 사단도 절도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는 그대의 이론이 비록 매우 새로운 것 같지만 역시 맹자의 본뜻이 아닙니다. 맹자의 뜻은 다만 순수하게 인·의·예·지로부터 발하여 나오는 것만을 가리켜 말해서 性의 本善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情 역시 선하다는 뜻일 뿐이었는데, 지금 그대는 반드시 이 정당한 본뜻을 버리고 끌어내려 보통 사람의 人情이 발하여 절도에 맞지 않는 것으로써 혼합하여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羞惡해서는 안 될 것을 수오하고, 是非해서는 안 될 것을 시비하는 것은 모두 어두운 氣質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찌 이것을 가리켜 경솔히 말하여 순수한 천리에서 발하는 사단을 어지럽힌다고 한단 말입니까. 이러한 의론은 斯道를 발명하는 데 무익할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後學들에게 傳示하는 데에 害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내가 전에 공의 소견이 이·기가 두 가지 物이 아니라고 한 羅整菴의 설과 흡사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나의 妄說이었습니다. 지금 공의 뜻을 보건대, 羅整菴의 오류와는 같지 않으나, 사단·칠정을 분석한 데 대해서는 그 위치가 떨어져서 장차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 가지의 情으로 認識하게 하거나 앓을까를 근심한 데 불과하고, 理虛(허령의 허가 理라는 말)의 논에 대해서는 말이 空無에 가까워서 장차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곳을 향하여 달리게 하거나 앓을까를 근심한 데 불과하니 이런 뜻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나의 소견으로는 그림으로 그려 논리를 세우는 데는 진실로 아는 자를 위하여 만들어야지 모르는 자를 위하여 폐해서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그 분석의 폐단을 염려하였다면 濂溪의 태극도에 太極圈을 드러내어 陰陽 위에 두지 않았을 것이고, 이미 위에 태극이 있으니 다시 중앙에 태극을 두지 않았을 것이며, 오행의 卷도

18) 谷神酋長 : 곡신은 無形·無骸·無逆·無違의 妙道를 비유한 말. 老子. 추장은 오랑캐나 도적의 우두머리를 이르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老·佛의 무리로서 도를 깨쳤다가 저들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이른다.

19) 저기 : 허무를 가리킴.

또 음양의 밑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허무의 폐단을 염려하였다면 태극의 眞實無妄을 염계는 ‘無極이다.’하지 않았을 것이며, 道·性과 태극의 진실을 程子·張子·朱子が 모두 ‘허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세에 와서 과연 염계의 圖說을 비방하는 여러 유학자가 어지럽게 일 어났으니 가령 그 때 주자가 論著하여 발명한 힘이 아니었다면 그 태극 도설은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되어 세상에 행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험삼아 주자가 圖解 뒤에 여러 사람들의 변론과 詰難한 것을 의논하여 결정해 놓은 곳을 보면 분석하는 것이 해롭지 않다는 뜻을 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지나치게 流俗의 폐단을 걱정하였겠습니까. 또 내가 말하는 허는 허하면서 실한 것이니 저 老佛의 허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無는 무하면서 有한 것이니 저 노불의 무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지나치게 異端으로 돌아갈 것을 걱정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독서하는 법은 무릇 성현이 의리를 말씀한 곳에 대하여 드러났으면 그 드러난 것에 따라 의리를 찾고 감히 멋대로 隱微한 데서 찾지 않으며, 은미하면 그 은미한 것에 따라 연구하고 감히 경솔히 드러난 데에서 추구하지 않으며, 淺近하면 그 천근함을 인하고 감히 穿鑿하여 심오하게 하지도 않으며, 심오하면 그 심오한 데로 나아가고 천근한 데서 머무르지 않으며, 分開하여 말한 곳은 분개하여 보되 渾淪에 해가 되지 않으며, 혼륜하여 말한 곳은 혼륜하여 보되 분개에 해가 되지 않게 하여, 사사로운 생각으로 左로 끌고 右로 당기어 분개를 합하여 혼륜으로 만들거나, 혼륜을 쪼개어 분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기를 오래 하면 자연히 점점 그 조리가 井然하여 문란시킬 수 없고, 성현의 말씀은 橫說豎說이 각각 마땅한 바가 있어 서로 妨礙되는 곳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혹 이것으로 說을 짓더라도 거의 본래 정해진 의리의 본분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고, 가령 잘못 본 곳과 잘못 말한 곳이 있어 남의 指點이나 혹은 스스로의 覺悟로 인하여 즉시 고친다 하더라도 역시 스스로 쾌족한 일인데, 어찌 하나의 소견으로 경솔히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여 다른 사람의 한 마디 말도 용납하지 않겠으며, 또 어찌 성현의 말씀 가운데 나의 의견과



같은 것은 취하고 같지 않은 것은 억지로 같다고 여기거나 혹은 배척하여 그르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당세에는 온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 시비를 대항할 수 없게 한다 하더라도 千萬世 뒤에 어찌 성현이 나와서 나의 흠을 지적하고 나의 숨은 병통을 간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군자가 서둘러 뜻을 겸손히 하고 말을 살피며 義를 행하고 善을 따라 감히 일시적으로 한 사람을 이기기를 계획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그대의 이른바 근세의 名公 鉅人들로서 이 학문 [此學 ; 性理學] 을 하는 이들 대부분이 俚俗에서 서로 전하는 말을 답습함을 면치 못하였다고 한 말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山野의 촌스러운 학문이어서 서로 인습하는 說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지난 해 國學의 책임을 맡고 있을 적에 여러 유생들이 익히는 바를 보건대 대부분 그 설을 따르고 있기에 시험삼아 그 설을 널리 구하여 여러 학설을 모아 보니, 진실로 이해할 수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뜻을 민망하게 하는 곳도 많아, 잘못 보고 잘못 인식하였으며 辭(句)에 얽매어 잘못 해설하는 등의 폐단을 이루 다 구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사단·칠정을 ‘이’와 ‘기’에 分屬한 설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天命圖 가운데 사단·칠정을 ‘이’와 ‘기’에 분속한 것은 본래 靜而이에게서 나온 것인데, 나 역시 그가 어디에서 이 설을 전수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여, 처음에는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되어 思索이 마음 속에 오간 지 수년 뒤에야 의심이 풀어졌지만 오히려 先儒의 說을 얻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여겼는데 뒤에 朱子의 설을 얻어 증명한 뒤에야 더욱 자신한 것일 뿐이고 서로 인습하는 설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胡雲峰<sup>20)</sup>의 설은 다만 성·정·심·의만을 논하였을 뿐, 이·기의 구분을 둔 것이 아니므로, 사단·칠정을 ‘이’와 ‘기’로 나눈 것과는 가리킨 바가 각각 다르니, 결코 나의 설이 여기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20) 胡雲峰 : 元나라의 학자. 이름은 炳文, 자는 仲虎, 호는 운봉. 朱子學에 전심하여 위로 伊洛의 淵源을 찾아 洙泗에까지 추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한다. 저서로 四書通·大學指掌圖 등 다수가 있다.

이로써 말한다면 사단·칠정을 나눈 것은 곧 내가 주자의 설을 과신한 연고일 뿐인데, 그대의 가르침에는 곧 俚俗에서 나온 것이라하여 운봉에게 죄를 돌렸으니, 운봉선생만이 허물을 달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근세의 諸公들도 반드시 이 말에 대해서는 원통하다고 칭하기를 마지않을 것입니다.

보내온 가르침에 ‘이’는 허하기 때문에 相對가 없고 상대가 없기 때문에 加損됨이 없다는 말을 통렬히 나무랐는데, 이제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니, 이 말의 병통은 다만 ‘상대가 없기 때문 [無對故]’이란 세 글자에 있을 뿐이므로 이제 “‘이’는 허하기 때문에 상대가 없고 加損도 없다.”고 고쳤으니, 이와 같이 하면 거의 병통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공이 나무라는 바는 병통에 있지 않고 오로지 그 말이 그릇된 견해에서 나왔다는 이유에서이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이치를 보는 데서 깨닫는 곳[解悟處]에 이르고 이치를 설명하는 데는 지극한 곳[至極處]에 이르러야 한다는 뜻인 줄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년의 공부를 쌓아서 겨우 그 髣髴한 것을 얻었으나 오히려 참으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의 병통이 있었는데, 공의 경우에 있어서는 一筆로 잠깐 사이에 결단해 버렸으니, 사람의 有知·無知가 어찌 30리의 거리<sup>21)</sup>일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공도 날로 진보하고 나도 날로 진보하여 다시 10년의 공부를 쌓은 뒤 각자의 造詣로 어찌서 그런 것인가를 보아야 彼此의 득실이 비로소 판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듣건대 “도가 같으면 片言으로도 서로 부합할 수 있지만, 같지 않으면 많은 말이 도를 해칠 뿐이다.”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배운 바가 같지 않다고 할 수 없는 데도 편언으로 서로 부합되지 못하고

21) 30리의 거리 : 재주에 차이가 있다는 말. 후한 때 曹操가 楊修와 함께 길을 가다가 曹娥碑에 “黃絹幼婦 外孫齏白.”라는 8자의 隱語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양수는 그 말의 뜻을 바로 깨달았으나, 조조는 30리를 더 가셔야 깨달았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황견은 色絲이니 絶이고, 유부는 少女이니 妙이며 外孫은 딸의 자식 [女子] 이니 好이고, 제는 매운 [辛] 부추이고, 구는 받는 것 [受] 이니 辭가 된다. 합치면 絶妙好辭라는 말이 된다. 世說捷悟.

많은 말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도를 드러내 밝힘은 없고 도리어 도를 어지럽히고 해치는 바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비록 그러나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며 도를 헤어리지 않는 자라면 끝내 부합할 이치가 없으니 다만 천하의 公論을 기다릴 뿐이고, 뜻이 도를 밝히는 데 있고 두 사람 모두 私意가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의사가 일치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치에 통달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군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늙어서 이같이 정신이 흐리므로 학문이 퇴보하고 私慾이 지나쳐서 망령되어 무익한 말을 하여 공의 切切惓惓<sup>22)</sup>하는 厚意를 저버린 것이나 아닌지 매우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나의 참람함을 용서하고 어진 마음으로 끝내 사랑해 주십시오.

### 3. 答奇明彦書(四七論辯 第三書)

(선생이 두 번째 편지에 답하였는데 明彦이 다시 논변하는 편지를 보내왔으므로, 선생께서는 다시 회답하지 않고 다만 서한 중의 몇 단락에 대해 비평해 두었을 뿐이다. 이제 보내온 편지를 節略하고, 선생이 비평한 말을 기록해 둔다.)

孟子가 理의 측면만을 주로 할 때는 진실로 이를 주[主理]로 하였다고 말할 수 있지만, 子思가 分化 이전의 상태[渾淪]를 가리켜 理氣를 겸해 말한 때에도 또한 氣를 주[主氣]로 하여 말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이 실로 제[大升]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오니 다시 가리켜 주시기를 삼가 빕니다.

이미 分化 이전의 상태[渾淪]로 말한다면, 어찌 主理와 主氣의 구분이 있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분별하여 말할 때에 이러한 구분이 있게 됩

22) 切切惓惓 : 벗을 사귀에 善을 간절히 권면하고 자상하게 인도하는 것.

니다. 이는 역시 朱子가 “性은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같다[同] 해도 되고 다르다[異] 해도 된다.”고 한 말도 같고, 또 “전체이다[全]고 해도 되고 한 측면이라[偏]고 해도 된다.”고 말한 것과도 같습니다.

주자는 말하기를 “천지의 성[天地之性]은 太極 본연의 妙이니 만 가지로 다르면서 하나의 근본[萬殊之一本]이고, 기질의 성[氣質之性]은 두 氣가 서로 운행하여 생긴 것이니 하나의 근본이면서 만 가지로 다른 것 [一本而萬殊]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질의 성은 이 理가 기질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일 뿐, 따로 한 性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의 편지에서 性を 인용하여 말한 것은, 다만 성에 있어서도 이와 기를 겸하여 말할 수 있다 하여 情人들 어찌 이·기로 나누지 못하겠느냐 하는 뜻을 밝힌 것이요, 성을 논하기 위하여 한 말은 아닙니다. ‘이가 기질에 떨어진 이후의 일’ 以下는, 진실로 그러한 것으로서 마땅히 <기질의 성> 에 입각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지의 성은 비유하면 하늘의 달이고, 기질의 성은 물 속에 비친 달입니다. 달이 비록 하늘에 있는 것과 물 속에 있는 것이 다른 듯 하지만, 그것이 달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의 달은 달이지만 물 속의 달은 물이다.’ 한다면, 어찌 이른바 ‘막힘이 없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사단칠정이라는 것은 理가 기질에 떨어진 이후의 일이므로 마치 물 속의 달빛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칠정은 밝고 흐림[明暗]이 있는 것이며 사단은 다만 밝음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정에 밝음과 흐림이 있는 것은 물이 맑은 것도 있고 흐린 것도 있기 때문이며, 사단이 절도에 맞지 않는 것[不中節]은 비록 빛은 밝지만 흔들리는 물결의 <영향을> 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건데 이러한 이치[道理]를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심이 어떠하실지요.

“달이 물 속에 비치매 어느 곳이나<달의 모습은>다 둥글다.[月落萬川 處處皆圓]”는 말은, 일찍이 先儒가 그 말의 옳지 않음을 논한 것을 본

적이 있으나 지금 그 말이<누가 한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겠고, 다만 보내주신 글에 따라 논하겠습니다. 하늘이든 물 속이든 비록 같은 하나의 달이기는 하지만, 하늘의 것은 진짜 달이고 물 속의 것은 다만 빛의 그림자[光影]일 뿐이므로 하늘의 달을 가리키면 실상을 얻지만 물 속의 달을 건지려면 실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으로 하여금 기 가운데 있게 한 것은 물 속의 달 그림자와 같아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면 어떻게 선을 밝히고 행동을 성실하게 하여 본성의 시초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성에 대하여 비유한 것이라 그래도 얼마만큼은 근사하다 하겠지만, 만일 정에 비유한다면 더욱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달이 물에 비칠 때 물이 고요하면 달도 고요하고 물이 움직이면 달도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물이 고요히 맑게 흘러 광경이 되비칠 경우에는 물과 달이 움직임에 아무런 장애도 없지만, 물이 아래로 세차게 흐르다가 바람이 불어 물결을 일으키고 돌에 부딪혀 물이 튀어오르게 되면, 달은 이 때문에 부서져서 빛이 일렁거리다가 심하면 달이 없어지기에 이릅니다. 대개 이러한 것인데 어찌 “물 속의 달이 맑고 흐린 것은 모두 달의 작용[所爲]이지 물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灑]는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달의 그림자가 고요히 맑게 흐르는 물에 비친 경우에는, 비록 달을 가리켜 달의 움직임을 말하더라도 물의 움직임을 자연 그 말 속에 있겠지만, 만약 물이 바람에 출렁이고 돌에 부딪혀 튀어올라 달의 모습이 일렁이거나 없어지게 되는 경우라면, 다만 그 물을 가리켜 물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므로, 달의 있고 없음과 밝고 어두움은 물 움직임을 크고 작음의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감히 묻겠습니다. 희·노·애·락이 발하여 절도에 맞은 것은 이에서 발한 것입니까? 기에서 발한 것입니까? 그리고 발하여 절도에 맞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선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그 선과 또 사단의 선[四端之善]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비록 기에서 발하지만 이가 그 기를 타고서 주가 되기 때문에 그 선택은 같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가 발하매 기가 따르고, 칠정은 기가 발하매 이가 탄다.’는 두 구절은 매우 정밀합니다. 그러나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四·七]의 뜻은 칠정에는 <이와 기가> 다 있지만, 사단에는 다만 理發의 측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大升]는 이를 고쳐서 ‘情이 발할 때는 혹은 이가 동하매 기가 함께 하고, 혹은 기가 感하매 이가 탄다.’고 말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이를 따라 발하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것이라면, 이것이 곧 이의 발[理發]입니다. 만약 이것 이외에 달리 이의 발을 구하려 한다면 저로서는 그 추측과 摸索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터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나치게 이와 기를 나누어 말하는 폐단입니다. 지난 번 편지에 말씀드렸는데도 이제 다시 아뢰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朱子는 이른바 “음양·오행이 뒤섞이면서도 단서를 잃지 않는 것이 곧 理다”고 한 것도 따를 수 없습니다.

‘도가 곧 器이고 器가 곧 도이다.’ 한 것은 그 아득한[沖漠] 가운데 만상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도가 기라는 뜻이 아니고, 또 物은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실제로 그 물을 가지고서 이치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大升은 말씀드리건대 “대체적으로 말한다면 불가할 것이 없다.[泛論則無不可]”고 한 것은 그 어떤 說할 것을 인하여 말한 것이며, ‘그림에 나타나면 불충분하다.’고 한 것은 상대적인 說할 것으로서 말한 것인데, 만약 반드시 상대적인 것으로 말한다면, 비록 주자의 本說을 썼더라도 잘못 인식하는 병통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가 이를 따라 발함을 이의 발[理發]이라 한다면, 이것은 기를 이로 간주하는 병통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에서 云云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4. 答奇明彦書(四七論辯 第四書)

지난 가을에 子中이 서울에서 7월 15일에 보낸 공의 편지를 전해 온 뒤로, 질병이 많아서 오랫동안 회답을 지체하였으므로 항상 慊然한 느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전해듣기에 임금의 부르심(벼슬)이 거듭 내렸는데, 行止를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몰라서 궁금한 마음이 평소보다 갑절이나 더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제 자중이 또 전해 온 공의 편지를 통해서, 이미 召命에 따라 서울로 들어가 다시 中書로 전입<sup>23)</sup>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비록 지난날에 물러났던 본 뜻과는 서로 맞지 않으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일을 처리하는 時義도 따라서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程子が 이른바 “도를 따른다”<sup>24)</sup>고 한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같은 비천한 사람이야 본래 말할 것은 못 되지만 그래도 늙고 병들기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름을 받았을 경우 항상 즉시 달려갔고 8~9년 사이에 그렇게 한 것이 세 차례나 됩니다. 하물며 공의 입장은 나와는 다르니 장차 무슨 핑계로 융통성 없이 한 가지만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오년 이후로 老病이 보다 더 심해졌는데도 과분한 임금의 은혜는 더욱 커졌으므로 덮어놓고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23) 中書로 轉入: 中書는 議政府를 지칭한다. 고봉은 이 해 10월 14일에 사간원에 서 의정부 검상(議政府檢詳)으로 전직되었다. 明宗實錄.

24) 程子が.....“도를 따른다. [以從道]”: 정자가 자신의 저서인 易傳의 서문에서 “수시로 번역하여 道를 따른다. [隨時變易以從道也]”고 한 것을 말함. 퇴계선생문집고증 권4.

무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후 여러 차례에 걸쳐 외람되게 辭避하다가 점점 더 낭패를 보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임금의 뜻으로 본다면 아직도 “병세의 차도가 있기를 기다려서 올라오라”는 분부이지만 신하인 나의 병은 차도의 시기가 없습니다. 그러한즉 꼭 임금님 독촉의 뜻이 있어서라 아니라 다만 위로는 公卿에서부터 아래로는 평범한 선비에 이르기까지 번갈아 편지를 보내어 나무라고 꾸짖는 것이 거의 거르는 달이 없습니다. 비록 각자에게 힘을 다하여 <나의 뜻을> 해명하였지만 모두들 헤아려 받아들여려는 생각은 없고 더러는 도리어 外道로 배척하기까지 하여 사람을 더 두렵게 만들어 벗어날 곳을 모르겠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간에 朴和淑에게 보낸 편지에 그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말했는데 그 후 답신을 받지 못하여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7월 15일자 편지의 별지에서 나의 미혹된 점을 지적하여 준 것은 그 뜻이 매우 고맙습니다. 그러나 역시 나의 일에 부합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과연 현명하여 우리 임금이 구하시는 인물에 적합하다면 공의 말씀은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지만, 내 자신이 재상감도 아니고 충분한 경륜도 없어서 임금의 깊은 은혜의 만분의 일도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빈 손으로 나아가 더없이 큰 벼슬을 받아 한 개인의 영리를 삼고, 이내 다시 돌아가기를 구하여 스스로 일신의 편안만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강구하고 연마해 온 의리와 이익의 한계를 가려온 말과 매우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뒷날 지하에서 古人들을 뵈더라도 정녕 여쭙 말미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할 뿐이니, 어찌하겠습니까.

四端七情을 논한 總說과 後設 두 편은, 그 논리가 더 할수 없이 명쾌하여 뒤엎혀 번잡된 병폐가 없고 안목이 지극히 정당하여 홀로 광대한 근원을 보았으며, 또 지난날 견해의 조그마한 착오까지 모두 다 고치고 새 뜻을 따랐으니, 이는 더욱 남들이 하기 어려운 점이라 매우 후릉합니다. 공이 논한 나의 설 가운데서 “성현의 회·노·애·락과, 또는 그



것이 각각 所從來가 있다.”는 등의 학설은 과연 미안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감히 다시금 반복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에 공이 보여주신 人心·道心 등의 설에 대해서는 모두 비교 연구해서 가르침을 청해야 하겠으나 이번에는 겨를이 없으므로, 子中이 서울로 가는 날을 기다렸다가 삼가 일일이 말하여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이때 부디 珍重하시기를 바랍니다.

##### 5. 答奇明彦書(四七論辯 第五書)

근자에 子中편에 보내주신, 공이 서울로 올라간 뒤의 편지를 받고는 즉시 답장을 써서 다시 자중편에 부쳤는데, 제때에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울 날씨가 이상한데 소식 주신 후의 공무로 바쁘실 터인데 근황은 어떠신지요. 鳳池<sup>25)</sup>에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 공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마는 잠시나마 조정의 동료들과 맺어지게 되었으니, 형세가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나는 본래의 병 이외에 귀에는 바람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눈에는 별이 번쩍거리는 듯하여 어지러운 상태로 날을 보내고 있으니, 학문과 몸을 닦지 못하는 근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앞서 보내주신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한 <총설과 후설> 두 편은 반복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옛사람이 이른바, “처음에는 의견이 들쭉날쭉하여 달랐으나 끝내는 분명해져서 결론이 같아졌다.”는 말이 참으로 실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서 편지에서 대략 말했지만, 오랫동안 생각해서 터득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으므로 당시에 미진했던 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의편지에> 희(喜)·노(怒)·애(哀)·락(樂)을 인(仁)·의(義)

25) 鳳池: 議政府의 별칭. 唐나라의 中書省에 鳳凰池가 있었던 데서 유래됨. 고봉은 이 해 10월에 의정부 검상으로 옮긴 뒤 윤 10월 25일 舍人으로 승급되어 있었다.

·예(禮)·지(智)에 짝지우는 것은 진실로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날에 圖解<sup>26)</sup>가운데서도 역시 근사하다는 점 때문에 시험삼아 分書해 보았을 뿐이지 진짜 낱낱이 나눠 배합하기를 四德<sup>27)</sup>을 인·의·예·지에 분배하다시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의 글에> “이의 발 [理之發] 은 理만을 가리키는 말이고, 기의 발 [氣之發] 이라는 것은 이와 기를 함께 섞어서 말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내가 일찍이 이 말을 “근본은 같고 끝은 다르다 [本同末異]” 하였습시다. 내가 본래 이 說에 대해 같다고 본 것은, 바로 이른바 ‘근본이 같다.’는 것이거늘 도리어 공은 이를 토대로 하여 마침내 “사단·칠정은 결코 이·기에 나누어 붙일 수 없으므로 이것이 이른바 끝이 다르다는 것이다 하였습시다. 진실로 지난날 공의 밝은 견해와 높은 논리가 지금 보내온 兩說처럼 明瞭하고 투철했다라면 어찌 끝이 다르다는 것이 있겠습니까.

일찍이 우리 두 사람이 주고받으며 논변한 글을 모아서 한 책으로 만들려 한 것은 그때그때 각자가 관찰하고 반성함으로써 결점을 고쳐나가기 위해서인데, 중간에 수습하여 기록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유감스럽습시다. 그 이른바 絕句 한 수<sup>28)</sup>도 기억이 나지 않으니 다음 편지에 적어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人心·道心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理論은 참으로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일찍이 이강이<sup>29)</sup>가 보내준 이일재<sup>30)</sup> 설과 강이가 쓴 나의 說 두 통을 보내니 한 번 살펴보고 裁正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에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따라 청하는 것이니 사람들에게 보이지 마시오. 후

26) 圖解: 鄭之雲의 天命圖.

27) 四德: 元亨利貞.

28) 絕句 한 수: 선생이 임술년(1562) 10월 16일자로 고봉에게 보낸 편지 끝에 쓴시를 지칭함. 퇴계선생문집고증 권4.

29) 李剛而: 강이는 선생의 문인인 龜巖 이정(李楨; 1512~1571)의 자.

30) 李一齋: 一齋는 이항(李恒; 1499~1576)의 호. 일찍부터 무예를 익히다가 30세에 학문을 시작 박영(朴英; 1471-1540)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泰仁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성리학에 전심하여 理氣一元論을 발전시켰다.

시라도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 第五書 別紙

전에는 寡梅가 참선의 맛을 찍이나 좋아한다는 말이 있더니, 중간에는 또 그가 困知記<sup>31)</sup>를 존중하여 믿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러한 말을 믿지 않았다가, 급기야 그가 지은 人心道心吟이라는 절구 두 수<sup>32)</sup>를 보고는 마음속으로는 매우 의심스럽게 여겨서 “과회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으리라. 아마도 好事者들의 假託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의 편지를 보건대 직접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물어 본 결과 그의 論指가 이와 같다고 하니, 나로 하여금 마음이 슬프고 실망하게 합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대체로, 整庵<sup>33)</sup>이 道에 대하여 한 부분도 못 본 것은 아닌데, 다만 그는 중대한 본원처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였으니, 기타 소소한 의논 중에 비록 합리적인 것이 많다 하더라도 모두 중요시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과회는 오랜 세월을 이 <성리학>에 힘을 써왔으므로 그다지 草草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의 견해가 程·朱學과는 부합되지 않고 도리어 정암의 것에 부합될 줄은 몰랐습니다. 李一齋가 일찍이 李剛而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암의 결점을 논하였는데, 강이가 또 그것을 <내게> 보내왔습니다. 일재의 소견은 과연 정밀하지 못하며 그 이론 역시 그릇된 것이 많다는 것은 공이 편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듣자니, 이 분은 독서는 별로 하지 않고 自信만 너무 지나치다 하니, 그의 오류는 반드시 所從來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寡梅의 오류는 禪學으로 인해서 길을 잘못 든 데서 온 것인 듯하니, 지난 날의 소문이 헛된

31) 困知記: 서명. 2권. 續記 2권, 부록 1권. 명나라 때 학자인 나흠순(羅欽順; 1465~1547) 저.

32) 人心道心吟이라는 절구 두 수: 盧守愼의 시. 주 45)참조.

33) 整庵: 명나라 유학자 羅欽順의 호. 程朱의 설을 기본으로 하여 一元氣說을 주장하고, 理一分殊說을 이루었음.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의 편지에서 말한 대로 語類와 輯註 등을 다 취하지 않은 것은 곧 이치를 궁구하는 번거로움이 싫어서 곧바로 간략하고 빠른 길로 가려는 것이니, 이 점이 특히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까닭을 밝히고자 하면 그 설명이 장황해지겠고, 공의 편지에서 이미 그 대강을 다 말하였으니 어찌 또 다시 우매한 나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그 사이에는 또 알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과회가 이미 理와 氣를 一物로 보았으면 마땅히 道와 器도 일물로 보아야 될 것 같은데도, 그 시에서는 “도와 기는 원래 이웃이 아니다.” 운운 하였으니, 이는 또 도와 기를 두가지로 나누어 서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병통의 소종래는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없으니, 깨우쳐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 第五書 附記(1)

四端七情說에 대하여 이전에는, “七情이 발하여 절도에 맞으면 그것이 四端과 다르지 않다.”고 알았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을> 이와 기에 나누어 붙이는 것에 의심을 품게 되어 “情이 발하는 데는 이와 기를 겸하고 선과 악이 있는 것인데, 사단의 경우엔 오로지 이에서 발하여 좋하지 않음이 없는 것만을 가리켜 말하고, 칠정의 경우엔 진실로 이와 기를 겸하고 선과 악이 다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일 사단을 이에 속한다 하고 칠정을 기에 속한다 하면 이는 칠정이 지닌 이의 한측면까지도 도리어 사단이 점유하게 되어, 선과 악이 다 있다고 하는 그것이, 다만 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되는 것 같으니, 이것이 말의 뜻에 있어서 의심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朱子가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라고 한 말을 반복하여 참고해 보고서야 마침내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리하여 생각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전날의 말은, 그것을 상세히 고증하지 못한 점과 극진히 성찰하지 못한 점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孟子가 사단을 논하면서, “무릇 나에게 있는 사단을 모두 넓혀 충실하게 할 줄 안다면...”<sup>34)</sup>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단이 있는 것을 확충하려고 한다면 ‘사단은 이의 발이다’라는 말이 실로 당연합니다. 그리고 程子は 칠정을 논하면서 “정이 이미 세차게 타올라 더욱 방탕해지면 그 성이 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자는 그 정을 절제하여 중도에 맞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칠정이 타오를수록 더욱 방탕함으로써 그 정이 절제하여 중도에 맞도록 하고자 한다면 “칠정은 기의 발이다.”라는 말이 또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보면 사단과 칠정을 이와 기에 나누어 붙이는 것은 자연히 의심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사단·칠정의 명칭과 의미에도 진실로 각각 그럴 만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칠정이 발하여 절도에 맞으면 그것이 사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니 대개 칠정이 비록 기에 속하지만 이가 본래 그 가운데 있으므로, 발하여 그 절도에 맞는 것은 바로 ‘천명의 성’이며, ‘본연의 체’이라면, 어지 기의 발이라 하여 사단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낸 주신 편지에, “맹자의 흥와 썸의怒와 공자의 哀·樂은 바로 氣가 理를 순종하여 발한 것으로서 털끝만한 구애도 없다.”고 한 말과, “각각 소종래가 있다.” 한 등의 말은 모두 타당치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릇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和라고 한다.”하였는데, 화는 바로 達道입니다. <그러니> 만약 보낸 주신 글대로 라면 達道도 또한 기가 발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이것 역시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주자가 일찍이 말하기를 “천지의 성을 논할 때는 오로지 이만을 가리켜 말하고 기질의 성을 논할 때는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한다.”<sup>35)</sup>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理發과 氣發의 논리입니다. 제가 일찍이 이 말을 인용하여 “이가 발했다는 것은 오로지 이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기가

34) 孟子가 사단을.....할 줄 안다면...”: 맹자 公孫丑上에 보임.

35) “천지의 성.....섞어서 말한다.”: 이 대문은 性理大全 권 30 氣質之性에 보인다.

발했다는 것은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다.”고 말한 것은 크게 무리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선생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아마도 그 용어의 사용이 적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내주신 변론에, 이른바 “情에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은 마치 性에 본성과 氣稟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하신 것은 저의 의견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무엇을 지적하여 “근본은 같으나 귀추가 다르다.”는 것을 살피지 않았느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기질의 성은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하는 것이다.” 한 것은 대개 본연의 성이 기질 가운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섞어서 말한다’고 한 것인데, 그러나 기질의 성 가운데 선한 것은 바로 본연의 성이고 따로 별개의 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의 이른바 “칠정이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과 사단은 그 내용은 같고 이름만이 다르다.”고 한 것은 아마도 理에 그릇되지 않는 것인 듯 합니다.

다만 사단·칠정을 이와 기로 해석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게 잘라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론이 자주 한편으로 치우치게 되었고 말씨의 사용에도 실수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감히 요점만을 추려 논하여 비평해 가르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외의 문구상의 적절치 못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일일이 분석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청할 겨를이 없습니다. 역시 큰 근본이 이미 같다면 사소한 것은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끝내는 반드시 의견이 같아질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오니, 회답을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 第五書 附記(2)

주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천지의 中正한 기운을 받아 태어나므로 아무 느낌도 없을 때에는 순수하고 지극히 善하여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으니, 이른바 性이 그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이 性이 있으면 곧 形이 있고 형이 있으면 곧 心이 있게 되어, 사물에 대한 느낌이 없을 수 없

으며, 사물에 느껴서 움직이게 되면 性의 욕구가 나오게 되어 여기에서 선과 악이 갈라지는데, 성의 욕구가 바로 이른바 情이라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 몇 마디 말은 실은 樂記에 나오는 動靜의 뜻을 해석<sup>36)</sup>한 것으로, 말은 비록 간략하지만 이치는 모두 간추어져 있으니 性情에 관한 모든 뜻을 남김없이 다 말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른바 정이란 것은 喜·怒·哀·懼·愛·惡·欲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中庸에서 이른바 喜·樂과 동일한 정입니다. 대체로 이미 이 心이 있어 사물에 대한 느낌이 없을 수 없다면 情이 이와 기를 겸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물에 느껴서 움직이면서 선과 악이 여기에서 갈라진다면 정은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喜·樂·愛·懼가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으면 곧 이른바 理이고 善이며, 발하여 절도에 맞지 않으면 바로 기품의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不善이 있게 되는 것인데, 맹자가 이른바 사단은 이·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는 정을 대상으로, 그 理에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만을 가려 내어 말한 것입니다. 대개 맹자는 性善의 이치를 밝혀내어 그것을 사단으로 말하였으니, 그렇다면 理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주자는 또 말하기를, “사단은 바로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다.” 하였는데, 대체로 사단은 이가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이가 발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진실로 의심할 바가 없겠으나, 칠정은 이·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는 것이므로 그 발한 것이 비록 모두가 기만은 아니지만 기질과의 섞임이 없지 않으므로 이를 ‘기가 발한 것’이라고 한 것이니, 이는 바로 기질의 성의 논리와 같습니다. 대개 성이란 본래 선한 것이지만, 기질에 떨어져 있으면 편벽되고 경쟁적

36) 樂記에 나오는.....뜻을 해석: “사람이 나면서 고요한 것은 하늘의 성이고 물에 느껴서 움직이는 성의 욕이다 [人生而靜 天之性也 感於物而動 性之欲也]” 라고 한 말을 지칭한다. 앞의 주자의 말은 이에 대한 註이다. 禮記集說 권 18 樂記..

인 것이 없지 않기 때문에 기질의 성이라 하고, 칠정은 비록 이와 기를 겸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약하고 기는 강하여 그것을 함께 관리할 수 없어서 쉽게 악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기의 발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칠정> 발하여 중도에 맞으면 바로 ‘이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므로 사단과 더불어 원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단지 이의 발한 것이라 한 것은, 맹자의 뜻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확충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학자들이 그것을 體認하여 확충하지 않아서야 되겠으며, 또는 칠정이 이와 기의 발함을 겸해 있지만, 그 이의 발함이 혹시 기를 주재하지 못하거나 기의 흐름이 도리어 理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학자들이 칠정의 발함에 있어 성찰에 의하여 잘 다스리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사단과 칠정의 명칭이 각기 있게 되는 까닭이니, 학자들이 진실로 이를 토대로 하여 추구해 나갈 것을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받을 넘어설 것입니다.

또 或問에서는 喜·怒·愛·惡·欲을 도리어 仁·義에 가까운 듯이 보고 있습니다. 주자가 “진실로 서로 근사한 점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저 “서로 근사한 점이 있다.”고만 말하고 그 근사한 점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은 본래 어떤 뜻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喜·怒·愛·欲을 인·의·예·지에 배속시키니 주자의 뜻에 비추어 과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개 칠정과 사단의 이론은 각기 하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아마도 섞어서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이 점 역시 몰라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